

수술 부위 안전·완벽하게 절개...맞춤형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도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원장

운동이나 취미 생활 등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돋보기와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노안·백내장 수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노안은 물론 백내장도 한꺼번에 개선하려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문의 또한 급증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안 및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에게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해 들어보았다.

◇ 백내장, 수술로만 해결 가능=눈의 수정체는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수정체도 노화돼 혼탁해지고 딱딱해져, 백내장이 발생한다. 백내장이 있으면 눈앞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 어두운 곳 보다 밝은 곳에서 증상이 심해진다. 이외에도 ▲눈부심 ▲눈 침침함 ▲시력 저하 ▲사물 겹쳐보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 생긴 백내장은 좋아지지 않고 수술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방지하면 녹내장이 추가로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를 하지만,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정도다.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인데, 혼탁해진 수정체를 꺼낸 후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한 번 생긴 백내장 좋아지지 않고 수술로만 해결이 가능
방지하면 녹내장 추가로 생기거나 최악 경우 실명할 수도

주는 것이다.

최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노안·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과 수술법이 같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이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단 초점 인공수정체 대신 먼거리·중거리·가까운 거리에 모두 초점을 맺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 레이저를 활용한 노안·백내장 수술법= 노안·백내장 수술 정확도는 '레이저'가 도입되면서 크게 높아졌다. 과거 백내장 수술은 안과의사가 칼을 사용해 수정체를 절개한 뒤 초음파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파쇄 후 흡입해 제거했다. 의료진의 손 기술에 의존해야 해 수정체 절개 시 매킨지 못하거나 수정체가 손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정체는 제대로 보존돼 인공수정체가 잘 들어가 자리잡을 수 있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칼 대신 레이저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할 때도 수정체를 깎아내고 있는 얇은 막(수정체 전낭) 중에서 수술에 필요한 부분만 레이저를 활용해 동그랗게 절개한다. 수정체 전낭의 형태가 뒤틀어지거나 밀리지 않고 깔끔하게 잘린다. 또 레이저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일차적으로 파쇄해 안구 내부 조직에 충격을 주는 초음파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 교정시력의 질을 높

이고 각막 내피세포의 손상, 후낭파열 등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빈도를 줄이는 비결이다.

광주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수술 전 입력된 데이터에 맞게 레이저가 수술에 필요한 부분만 매킨지 절개한다"며 "오차도 없고 정확하게 절개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르고 높은 교정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안과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장비인 카탈리스뿐만 아니라 칼이 필요없는 점도 등 다양한 백내장 수술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하나의 레이저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안구 상태와 백내장 진행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비로 수술하기 위해서다.

◇ 나에게 맞는 렌즈 선택하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서 수술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렌즈를 선택하는 일이다. 삽입하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 특정거리의 시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렌즈삽입 후 30~40cm의 거리는 잘 보이지만 PC와 눈 사이의 거리인 70~80cm의 거리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시력 상태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렌즈가 있어 수술 전 환자의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 취미, 근거리 정도, 야간활동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렌즈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리인 40~80cm까지 연속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팬옵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원장이 3개 초점의 시력이 우수한 심포니 렌즈 시술을 하고 있다. <신세계안과 제공>

틱스 렌즈, 원거리와 근거리를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니스 렌즈, 3가지 초점을 연속적으로 우수하게 시력을 제공하는 심포니 렌즈까지 다양한 종류를 내 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백내장 수술 후 우수한 교정시력을 결정하는 건 의료진의 숙련도이며, 시력교

정술, 렌즈삽입 등 풍부한 임상 경험은 수술 성적을 좌우한다"며 "특히 노안·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나 레이저 수술장비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장비가 구비된 안과에서 수술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개원 110주년...“AI·빅데이터 기반 다진 스마트병원 구축”

전남대어린이병원 3주년 기념식도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개원 110주년을 맞아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제2 도약을 선언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5일 병원 6동 백년홀에서 개원 110주년 및 전남대어린이병원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인사 초청 없이 원내 간부와 이사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약식으로 열렸다. <사진>

이삼용 병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진료·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국내 의료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결과,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면서 “앞으로 이 여세를 몰아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삼용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연구력 강화, 경영 내실화, 전문화된 의료역량 강화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미래의료를 이끌 전남대병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의료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연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병원 내 의생명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의대 3호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연구동으로 활용하는 등 연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탄탄한 연구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진료부문의 성과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수준 높은 환자치료이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후 바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신속대응팀 회의를 매일 개최하

면서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후 선별진료소 확대와 국민안심병원 운영 그리고 빛고를 전남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교육부문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대상 정기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직원을 대상으로 한 CS특강,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재교육에 힘써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의학박물관 건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집에 등재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사진>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 아카이브 자료집에 등재됐다.

이 자료집은 근현대 역사문화 경관의 과거 흔적과 현재 양상을 사료로 남기고, 관련 자료들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책자로, 전남대 의학박물관은 '현대사 현장기록IV:전북·전남·광주·제주 편'에 1951년 의과대학 옛 본관 완공 당시의 흑백사진과 현재의 의학박물관 사진이 겹쳐져 소개됐다.

의학박물관 건물은 지난 1948년 6월 17일 착공해 6·25 한국전쟁 중인 1951년 9월에 준공됐다. 갈

은 시대에 건립된 대학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한국전쟁 중에도 꾸준히 건축공정이 진행된 점과 모더니즘의 세련된 디자인, 조적조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연결의 적합성 등에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728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현재는 36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한 채, 호남의 역사 발굴과 연구에 힘쓰는 전남대 의학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